

[ 바둑 ]

# 이창호 후지쓰배 4강행

## 日 아마시타 꺾어...박영훈·강동윤도 준결승 합류

이창호가 후지쓰배 우승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지난 6일 서울 한국기원 4층 본선 대국실에서 열린 제22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에서 이창호 9단이 일본의 기성(棋聖) 아마시타 게이오 9단에게 백으로 249수만에 4집반을 이겼다.

역대전적 5전 전승으로 아마시타에 절대 우위를 보이던 이창호는 이날 초반 우하귀 전투에서 실패해 대마가 죽으며 비세에 빠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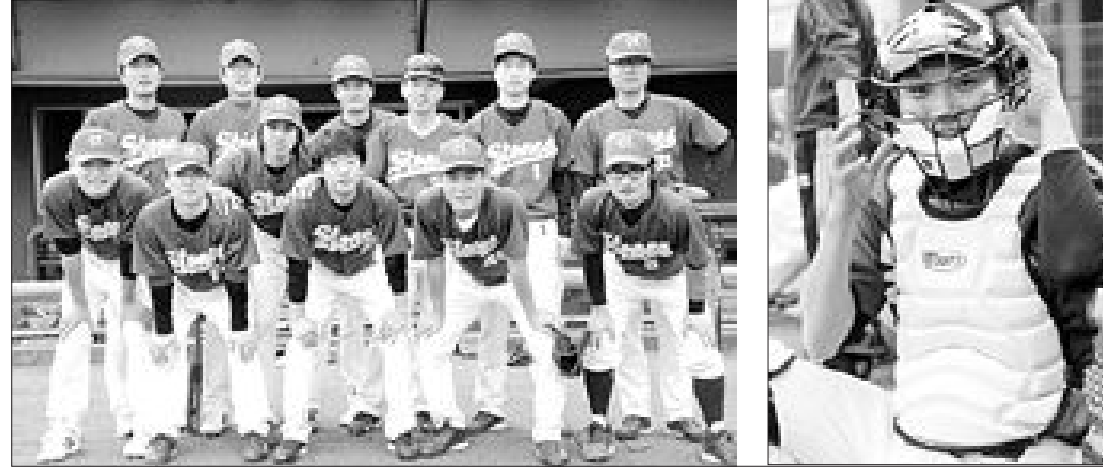
끈적하게 조금씩 따라붙으며 아마시타를 괴롭히던 이창호는 중반 좌중 양 흑을 패로 잡으며 역전에 성공했

고 이후 특유의 철벽방어로 아마시타의 공격을 막아내며 대역전의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박영훈 9단도 일본의 고노리 9단을 맞아 흑으로 272수만에 4집반을 이겼고 강동윤 9단 역시 중국의 파오윈야오 5단을 174수 끝에 백불계로 물리치며 준결승에 합류했다.

한편 '뽕김1위' 이세돌 9단은 중국 의 창호 9단에 9단에 패배하며 탈락했다. 이창호와 창호, 박영훈대 강동윤으로 짜여진 4강전은 오는 7월 5일 일본 도쿄 일본기원에서 열린다.

우승상금 1천500만엔(약2억원)이다. /연합뉴스



장시간 앞서서 경기를 해아하는 프로기사들이 야구팀을 만들어 건강을 지키고 있다. 사진은 프로기사로 꾸러진 '기(棋)'팀의 모습(왼쪽)과 안방마님 박병규(오른쪽) 6단. (사이버오로 제공)

# 김승준 '던지고' 최철한 '때리고'

## 프로그사 야구단 '棋' 재창단, 연예인리그 참여

“바둑 기사들의 훈련 구경하세요”

프로바둑기사들로 이뤄진 야구팀 '기(棋)'(주장 한종진 8단)가 국민생활체육 야구연합회가 후원 2009 연예인 야구리그에 참여한다.

지난해 야구를 좋아하는 젊은 프로기사들이 주축으로 결성했고, 팀명을 '흑백스톤즈'에서 최근 바둑을 뜻하는 한자의 '기(棋)'로 바꾸고 재창단했다.

기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최철한, 김승준, 김영삼, 양건, 박병규, 윤현석, 이정우 등 전원 현역으로 활동 중인 프로기사들이다.

마운드에는 선수들 중 최고의 제구력을 자랑하는 한종진 6단과 김승준 9단, 이현욱 6단이 지키고 있으며 17세의 김지석 3단이 차세대 '어깨'로 조련 중이다.

기팀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한 차례 경희대 수원캠퍼스 야구장에 모여 훈련을 하고 있다. 감독은 경희대 야구감독을 지낸 강진규(54) 씨이다.

연예인 아마야구리그는 현재 유재석, 이휘재, 정준하 등이 소속된 '한'과 박상진, 이종원, 이문세 등의 '조마조마', MBC 아나운서들이 주축이 된 'MBC 울스타입', 영화

감독으로 구성된 'CRP' 등이 참가하고 있다.

총 10개 팀이 각 9명기를 치른 후 1~5위 A조, 6~10위는 B가 되어 각 조 1위끼리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현재 기팀은 3게임을 치러 2승1패를 기록, 조마조마연예인 야구단, '한' 야구단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합팀과 경기를 가져 이현욱이 선발 등판했지만 3이닝 4실점을 내줘 1-7로 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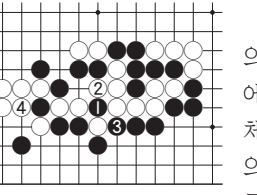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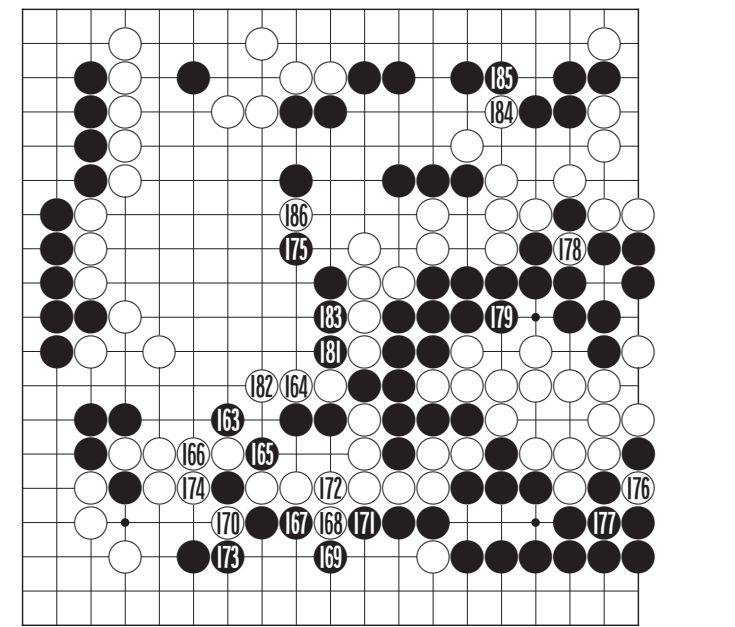
이날 기팀은 이영구 7단, 이정우 6단, 최원용 5단 등을 비롯해 여자 기사중 문도원 초단, 김해림 초단 등이 응원전을 펼쳤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스치 지나버린 결정타' 1회전 9보(163~186)

白 강창구 5단 黑 허우석 5단 (주박관리사회) <광주시청>



<참고도>

까지 잡은 허우석 5단.

이제는 흑 163으로 붙여가며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외친다.

이 수가 응수하기가 까다로운 수로 강력한 수였다. 아래쪽을 받자니 181에 끊기면 위쪽의 백 대마가 위협하다. 그래서 강창구 5단이 164로 밀어간 것은 고심의 일작인데 이번에는 흑 165로 끊겨 아무래도 수습불능이 되고 있다.

흑 167이 강수 제일타, 백은 168로 맞혀놓고 170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가 결정타를 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허우석 5단은 무심코 흑 171로 물고 말았으나 이 수가 결정타를 놓쳤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먹여야 했다. 그런 다음 3으로 붙면 백은 4로 때릴 수밖에 없는데 만패 불침의 천지대패가 된다. 이 패는 백이 지면 우변의 백 대마까지 몽땅 잡히게 되므로 그것으로 바둑도 끝이었다.

이런 절호의 기회가 스치 지나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허우석 5단은 다시 흑 181로 끊어 강력한 공격을 계속해 나간다.

강창구 5단이 참고끝에 끼워넣은 186은 무슨 뜻일까. <오광복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 프로기사 정년은 80세

## 내년부터 연금제 실시 따라 규정

프로기사들의 정년은 과연 언제일까?

한국기원 프로기사회는 지난 달 임시 총회를 열고 프로 기사에 대한 연구 수당 지급 제도를 개선했다.

현재 모든 기사에게 지급되는 연구 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해 내년부터 40세 이상 기사에게만 지급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40세 이상자에 지급되는 연금 액수는 기존 연구 수당에 비해 80~100% 정도 늘어나게 됐다.

프로 기사 연금은 80세까지 지

급되므로 사실상 프로 기사 정년이 80세로 정해진 셈이다.

지금까지는 스스로 은퇴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대회 출전에 따른 대국료 외에 일정액의 연구 수당을 매달 받았다.

한편 연금제 실시에 따라 연구 수당 지급이 중단되는 40세 이하 기사들에 대해서는 학교 군부대 등 외부단체에 지속적으로 보급 활동을 펼 경우 일정액의 보급 지원금을 지급기로 했다.

/오광복기자 kroh@

“바둑 기사들의 훈련 구경하세요”

프로바둑기사들로 이뤄진 야구팀 '기(棋)'(주장 한종진 8단)가 국민생활체육 야구연합회가 후원 2009 연예인 야구리그에 참여한다.

지난해 야구를 좋아하는 젊은 프로기사들이 주축으로 결성했고, 팀명을 '흑백스톤즈'에서 최근 바둑을 뜻하는 한자의 '기(棋)'로 바꾸고 재창단했다.

기팀에 소속된 선수들은 최철한, 김승준, 김영삼, 양건, 박병규, 윤현석, 이정우 등 전원 현역으로 활동 중인 프로기사들이다.

마운드에는 선수들 중 최고의 제구력을 자랑하는 한종진 6단과 김승준 9단, 이현욱 6단이 지키고 있으며 17세의 김지석 3단이 차세대 '어깨'로 조련 중이다.

기팀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한 차례 경희대 수원캠퍼스 야구장에 모여 훈련을 하고 있다. 감독은 경희대 야구감독을 지낸 강진규(54) 씨이다.

연예인 아마야구리그는 현재 유재석, 이휘재, 정준하 등이 소속된 '한'과 박상진, 이종원, 이문세 등의 '조마조마', MBC 아나운서들이 주축이 된 'MBC 울스타입', 영화

감독으로 구성된 'CRP' 등이 참가하고 있다.

총 10개 팀이 각 9명기를 치른 후 1~5위 A조, 6~10위는 B가 되어 각 조 1위끼리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현재 기팀은 3게임을 치러 2승1패를 기록, 조마조마연예인 야구단, '한' 야구단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합팀과 경기를 가져 이현욱이 선발 등판했지만 3이닝 4실점을 내줘 1-7로 패했다.

이날 기팀은 이영구 7단, 이정우 6단, 최원용 5단 등을 비롯해 여자 기사중 문도원 초단, 김해림 초단 등이 응원전을 펼쳤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 박병규·허영호·백홍석 7단 승단

박병규, 허영호, 백홍석이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어 완성해 이른다'는 구제(具體·7단의 별칭)에 올랐다.

박병규는 지난달 열린 KB국민은행 2009한국바둑리그 예선 2회전에서 김만수 7단을 꺾고 승단의 기쁨을 누렸다.

이와 함께 허영호, 백홍석도 한국리그 본선 시드를 부여받아 7단으로 승단했다.

박병규는 장수영 9단 문하로 1998년 프로에 입문했으며, 지난 2003년 제22기 KBS바둑왕전에서 서준우승(승태근에 0-2패)을 차지했다.

허영호, 백홍석도 한국을 대표하는 신예강자들이다. 허영호는 지난 2006년 제16기 비씨카드대 신인왕전과 2007년 마스터즈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백홍석은 2006년 제10기 SK가스배 신예10결전 정상에 올랐다.



<허영호> <백홍석> <박병규>

이밖에 박진솔, 손근기는 '간단한 기교를 부릴 줄 안다'는 소교(小巧·4단)에 올랐고, 윤영민, 김수진은 '비로소 싸우는 힘을 갖춘다'는 투력(鬪力·3단)에 등극했다.

또 김진훈, 안홍준, 함윤규는 '일견 어리석어 보이지만 나름대로 움직인다'는 약우(若愚·2단)에 오르는 등 모두 10명의 기사가 승단했다. /오광복기자 kroh@

# 권갑용 바둑도장 국내 첫 200단 돌파

권갑용 바둑도장이 국내 단일 도장 최초로 출신 프로기사의 단합이 200단을 넘어섰다.

권도장은 지난 5월 초에 있었던 KB국민은행 2009한국바둑리그 예선에서 백홍석 6단이 본선 시드를 부여받아 7단으로 승단, 마침내 200단을 돌파하게 됐다.

권갑용 7단은 지난 1983년 국내 최초의 바둑도장을 설립했으며, 1987년 바둑전문 도장을 오픈, 전문기사 육성에 힘써왔다.

1989년 박승문 6단을 시작으로 한국바둑계의 주역으로 성장한 이세돌 9단, 최철한 9단, 강동윤 9단, 원성진 9단 등을 배출했다.

또 지난 2003년 11월 제97회 입단대회에서 김지석 을 입단시킴으로써 단일도장 100단 돌파라는 쾌거를 일궜다.

관공을 통과한 김기원 초단까지 모두 43명의 프로기사를 배출했다. /오광복기자 kroh@

# 우승상금 5억 8500만원

日 기성전 세계 최고액 기전

일본 랭킹 1위 기전인 기성전을 주최하는 일본기원이 우승상금을 올렸다.

이에 따라 기성전 우승상금은 4천 200만엔에서 300만엔이 오른 4천500만엔(한화 약 5억8500만원)이 됐다.

이는 세계 모든 바둑대회 중 최고액이다. 현재 고액의 우승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국내의 바둑대회를 살펴보면 4년마다 치르는 응씨배 우승상금이 40만달러(한화 약 5억원)이며, 일본 명인전 우승상금이 3천700만엔(한화 약 4억8천만원), 일본 본인방

전 우승상금이 3천200만엔(한화 약 4억1600만원), 도요타배 우승상금이 3천만엔(3억9천만원), 비씨카드배 3억원 등이 있다.

환율 변화에 따라 응씨배와 우승상금이 비슷했으나 일본 기성전이 300만엔으로 올리면서 우승상금 세계 최고액의 기전이 됐다.

제34기 기성전은 최종 본선리그 진출자 12명(A, B, C, D, E, F, G)을 모두 선발한 가운데 오는 11월 A, B, C 1위까지 도전자결정전을 치러 아마시타 게이오 기성에게 도전할 도전자를 가리게 된다. /오광복기자 kroh@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앞에서 지산주유소쪽으로 7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월별	대표이사 010-7570-7525	여파동/월리	경주시 010-5879-0805	주목/재개발	백정철이사 010-2611-5588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평	면적/평	면적/평	면적/평	면적/평
상업용	대137,250㎡	199㎡	697㎡	5층 유동터로	
주거용	대63,217㎡	398㎡	195㎡	4층 건물	
공업용	대538,213㎡	489㎡	239㎡	5층,미트사우나	
산지	대58,213㎡	50㎡	396㎡	2층상대건물	
소수용	대82,213㎡	64㎡	292㎡	7층,미트사우나	
실업용	대124,213㎡	109㎡	391㎡	5층 목욕탕	
실업용	대88,213㎡	897㎡	294㎡	4층 건물	
주거용	대150,213㎡	23㎡	129㎡	6층 근린시설	
주거용	대216,213㎡	289㎡	129㎡	5층 근린시설	
주거용	대212,213㎡	29㎡	2㎡	다가19세대	
주거용	대87,213㎡	69㎡	49㎡	현관20세대	
주거용	대91,213㎡	49㎡	39㎡	현관17세대	
주거용	대54,213㎡	19㎡	19㎡	다가19세대	

속박시설/상가	순해전이사 010-9611-2817	근린주거	백정철이사 010-2611-5588	공장/모지	경주시 010-5879-0085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평	면적/평	면적/평	면적/평	면적/평
상업용	대45,214㎡	39㎡	19㎡	4층 근린주거	
주거용	대120,214㎡	139㎡	49㎡	6층 근린주거	
주거용	대382,214㎡	49㎡	29㎡	4층 근린주거	
주거용	대54,214㎡	14㎡	99㎡	8층 근린주거	
주거용	대162,214㎡	129㎡	69㎡	8층 근린주거	
주거용	대45,214㎡	29㎡	19㎡	4층 근린주거	
주거용	대174,214㎡	149㎡	49㎡	5층 근린주거	
주거용	대37,214㎡	11㎡	29㎡	지하층	
주거용	대11,214㎡	6㎡	17㎡	지하층	
주거용	대81,214㎡	9㎡	89㎡	2층상가	
주거용	대10,214㎡	19㎡	59㎡	2층상가	
주거용	대92,214㎡	89㎡	39㎡	8-12층	
주거용	대177,214㎡	149㎡	19㎡	1층상가	

평안동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대338㎡, 2199㎡	대138㎡, 2199㎡	대138㎡, 2199㎡	대138㎡, 2199㎡	대138㎡, 2199㎡	대138㎡, 2199㎡
대338㎡, 2199㎡	대138㎡, 2199㎡	대138㎡, 2199㎡	대138㎡, 2199㎡	대138㎡, 2199㎡	대138㎡, 2199㎡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시장흐름을 예측하는 전문가들의 자산관리실용평가  
광주·전남권 토지·건물 구매  
Tel:062)973-9174, 016-757-8800

**토지구획** **수원지구** **건축상업** **상업용지**

**청단지구상업용지**  
1100평 40억(평당 470만)  
200평 22억(평당 1100만)

**수원택지개발지구**  
아주저렴지  
철의안도(택지)  
생활대역권지

**신창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 140평 근린 122평 80평

**전용 가능한 금매물**  
자연녹지 : 3800평 대정차진입가 6차선상장  
생선녹지 : 2800평 평동공단인근 특기상장

**우량임야**  
(연수원 복지시설 캠퍼스 특사 등)  
면적 25만평 장성 14만평 보성 39만평  
보성 56만평 함평 50만평  
부자대비 수익성이 높은  
골프연습장 매개가 17억 5천만원

**향촌용 260평**  
2중주거지역 긴급처분  
부자유량 평당 450만  
회수용 주거지역 2400여평  
공장  
하남공단 800평

**건물매도**  
27억 (보증금 3억5천 월1900만)  
19억 (보증금 1억5천 월1300만)  
투자가치 최고의 절세형 물건

● 광주 장성권 토지·건물 ●  
투자유망물건 다량 보유 (0천만원~000억원)  
062)973-9177, 010-3625-1362  
첨단지구 국민은행 주차장으로 오십시오.

**상무랜드 공인중개사**  
T: 383-5221 H: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발판(임대용, 투자용)  
• 토지600평 건물1,350평(매가78억)  
보증금37억/월세3,000만원 용지12억  
• 토지500평 건물1,500평(매가85억)  
보증금7억/월세6,000만원(매가85억)  
• 토지590평 건물750평(매가100억)  
보증금40억/월세2,000만원 용지12억

▶토지  
(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회사용 및 병원, 학원지 등)  
• 834.5㎡(251평)-매가 평당1,300만원  
(월세버스극장용 매가백스 증진시켜라도)  
• 833㎡(250평)-평당1,200만원  
(매년세로매매)-평당1,200만원  
(매년세로매매)-평당680만원  
(상무지구 유휴지 주변)

▶기타용도  
• (농장)73,000㎡(22만2천평)  
평당 10만원(동상)경기부자로 좋은곳  
(2층유용주택 보증금 3,000만/월450만원)

현금 46억 무리로  
월수익기금용 모델 및 호텔운영상담  
맞춤서비스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드리며,  
정리해실 물건 판매 도와드립니다.  
아무 때나 전화주세요.

**대인동상일부동산**  
☎ (02)223-1140, 5210 전화 01-602-2532  
(광주은행 신분점 옆, 대인동 소정사건-내편)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엄오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